

Ethylene, 삼성 트러블 15달러 상승

FOB Korea 785-795달러 형성 ... 6월초 사용물량 4300톤 긴급구매

Ethylene 가격은 5월28일 FOB Korea 톤당 785-795달러로 15달러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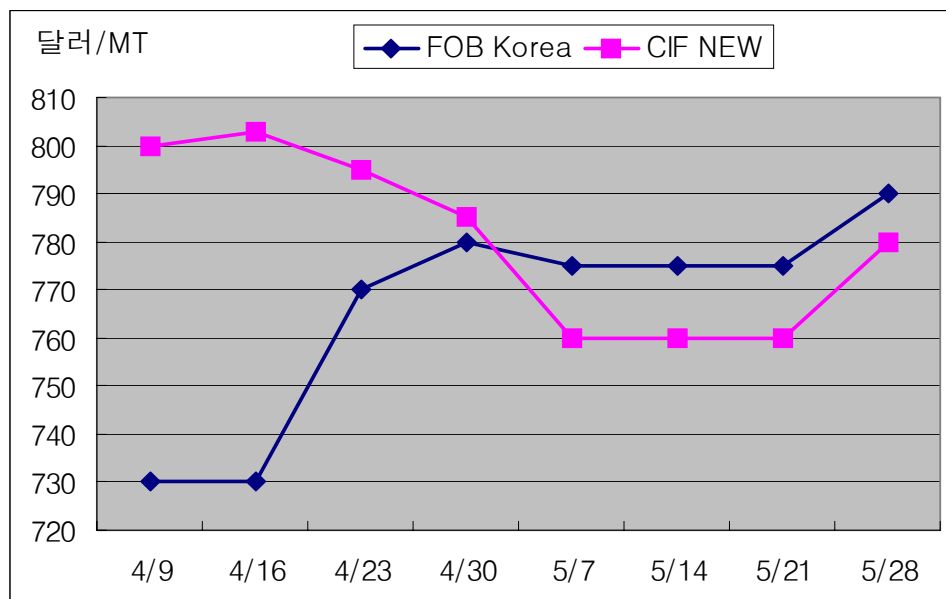
아시아 에틸렌 시장은 한국 및 동남아시아 크래커들의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으로 수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가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CFR SE Asia는 780-800달러로 40달러 급등했다.

삼성Atofina는 대산 소재 크래커의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으로 6월 초순 사용할 2300톤을 CFR 830달러에, 2000톤은 CFR 835달러에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CFR 830-835달러는 FOB Korea 기준 790달러에 해당하는 가격이다.

삼성Atofina의 크래커는 고압 스팀라인에 문제가 발생해 가동을 중단했으나 5월28일 재가동에 들어갔고 5월 29일부터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thylene 가격추이



한편, 유럽의 에틸렌 가격은 5월28일 CIF NWE 톤당 770-790달러로 20달러 상승했으며, 2/4분기 계약가격은 607유로를 형성했다.

<화학저널 2003/06/02>